

# 中國의 團領에 대한 研究

金 美 子

(서울여자대학)

<目 次>	
I. 序 言	D. 明의 團領
II. A. 南北朝時代의 團領	III. 結 言
B. 唐의 團領	참고문헌
C. 宋의 團領	

## I. 序 言

본 연구는 중국(唐~明)天子에서 부터 천인계급까지 널리 착용되었던 團領에 대해 연구 한 것이다.

원래 단령은 胡服으로 南北朝시대에 중국인이 입기 시작해서 당시대에 일반화되어 중국옷으로 알게 되었다.

단령은 宋代에는 窄袍로 明代에는 盤領衣 혹은 團領衫으로 불려졌다. 高麗와 朝鮮王朝는 明에서 사여받아 冠服중 常服으로 착용했고 그 형태는 점차 國俗化되며 조선말기까지 단령으로 더 많이 사용된다. 그래서 중국의 단령에 대한 연구라고 임의로 논문제목 붙였다.

조선왕조에서의 단령의 위치나 국속화된 점을 찾으려면 우선 중국의 단령을 알아야 하는데 중국(대만)에서 연구된 것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다. 다음 연구인 조선왕조의 단령에 대한 연구를 위해 먼저 본 연구를 착수한 것이며 한국에서 수집할 수 있었던 여러책의 사진을 참조 복사했고(표 2,3 참조). 「구당서」 「송사여복지」 「대명회전」을 중심으로 고찰했는데 후일 더 많은 자료를 얻어 보충하고 수정하고자 한다.

단령은 袍·紗帽·帶·靴로 구성되는데 여기

서는 袍를 주로 다루었고 사모·대·화·補에 대해서는 자료 제시에 그친다.

## II. 本 論

### A. 南·北朝시대의 團領

단령은 원래 중국 漢族의 옷이 아니고 胡服이라고 한다. 胡服이란 北方異民族 또는 西方異民族의 옷을 말하는데 남·북조시대 이전의 각 민족의 단령의 源流는 힘이 못미쳐 다음으로 미루고 남조의 梁職貢圖와 북조의 西魏벽화(도 1) 및 北齊校書圖(도 2)를 참조하여 단령의 형태를 추정한다.

먼저 남·북조의 歷史的 배경을 살펴 보면 北朝(386~581)는 鮮卑족인 탁발규(道武帝 재위 386~409)가 중국 북부를 통일하여 北魏(後魏)를 세우므로 해서 시작된 나라이다. 이 北魏는 孝明帝(재위 515~28)때 東魏(고환)와 西魏(우문태)로 분열되었는데, 고환의 아들 高洋(文宣帝 재위 550~559)이 동위를 北齊라 했고, 서위는 우문태의 아들 우문각이 北周를 세워 孝閔帝(557)라 칭했으며 그 동생 孝武帝(재위 560~578)때 북제를 쳐서 중국 북부가 분열된지 40년 만에 재통합 되었다.

한편 강남지방에서는 東晉의 安帝가 郡벌의 두령 劉裕에게 禪讓하니 이가 곧 宋의 武帝(420)로 南朝가 시작되었다. 齊왕조 梁왕조 陳왕조의 순서로 선양받았던 남조는 589년 隋의 文帝(중국화한 鮮卑人인 듯함)에게 망했다<sup>1)</sup>.

남·북조시대부터 호복인 단령(盤領衣)을 입기 시작했다는 기록을 살펴보면 “宋의 沈括은 「夢溪筆談」 卷一故事에서 중국 衣冠은 北朝이래로 窄袖·緋綠·短衣 長鞞靴인 胡服을 모두 입었다...”<sup>2)</sup>라고 했고 王宇清은 “중국의 전통적인 복장 형태는 交(方)領 右衽인데 南北朝시대에 胡服인 盤領衣와 左衽이 있었다. 隋와 唐의 帝王이 北國에서 發祥했기 때문에 北國的 盤領衣를 들여와 중국옷과 더불어 유행했는데 지금의 常服은 처음부터 右衽이었다<sup>3)</sup>”라고 했으며 “구당서 여복지에 常服 赤黃袍 折上頭巾...九環帶 六合鞞는 魏에서 시작되었고...”<sup>4)</sup>라고 있다.

또한 단령의 기원을 金東旭교수는 “流沙地方에 있어서는 砂塵이 날라 목(頸)을 緊縛할 필요를 느꼈을 것이다. 그래서 團領이 形成되었지만 이것을 採用하여 常服을 삼은 것은 역시 漢族이었다. 애초에는 團領으로 하면서 開襟도 하여 「反襟袍」라고도 하였다. 이런 면에서 團領을 열면 直領이 된다는 것도 衣服의 實用面에서 생각해볼 일이다”라 했다.

그간의 服飾制樣을 이를 插圖로서 考察해본다 도(1)은 「得眼林故事圖」로 西魏(535~557)의 벽화인데 옷을 입은 도적 5인이 서있고 도적 4인의 옷을 벗겨 옆에 놓아둔 것의 모양은 둥근깃과 좁은 소매와 설피와 옷단에 옷과 다른색인 연두색 선을 대었다. 겹옷이며 길은 고동색겉감과 붉은색 겉감에 미색 안감을 맨것이 보이는데 옷깃 끝 양쪽에 안감과 같은색 끈을 달았다. 여밈이 가슴 중앙에 오는 것으로 보아 설피를 따로 대지 않고 異色襟의 넓이만큼 여며진것 같고, 左衽인지 右衽인지 잘 모르겠다. 허리에 띠를 매었는데 허리부분을 치켜 올려매어(朝鮮의 거들치마 같이) 옷단의 모양이 평평하지 않았고 옆트임은



(圖 1) 敦煌千佛洞 285窟 得眼林 故事圖(중국미술 II. 강담사)



(圖 2) 北齊校書圖(大唐의 繁榮)

없었다.

도(2)는 「北齊校書圖」(後代의 모사품)로 北齊(550~577)의 왕자가 학자들에게 서적을 교정시키는 장면이다. 왕자는 窄袖에 소매길이가 긴 붉은색 단령을 입었는데 옷길이는 발목과 종아리 중간정도이고 흑색靴를 신고 있다. 학자 2인은 소매는 窄袖이며 매우 길고 연고동색 단령에 띠를 띠었고 고동색靴를 신고 옷길이는 왕자와 같았다. 왕자나 학자 모두의 옷깃은 좁았고 젖혀서 입고 있다. 옷깃 만드는 법은 唐代와 같

1) 世界文化史 III. (학원사, 서울 1964) pp.415~447

2) 源田淑人 唐代의 服飾(東洋文庫 東京 소화 45년) p.80

「中國衣冠 自北朝以來全用胡服 窄袖 緋綠 短衣長鞞靴...唐武德貞觀中猶爾 至開元後稍博矣」

3) 王宇清 龍袍(國立歷史博物館 中華民國 六十五年) p.13

4) 海寰王國維 古胡服考( ) p.18



(圖 3) 梁職貢圖(원색세계의 미술) ① 龜茲國使 ② 鄧至國使 ③ 周古柯國使

이 좁고 길다란 직사각형 형질을 목에 둘러 대어 만든 것으로 본다.

도(3)은 梁職貢圖<sup>5)</sup>중 龜茲國使 鄧至國使 周古柯國使圖인데 “이 3國은 梁書 西北諸戎傳에는 보이지만 隋書·唐書의 西戎전에 보이지 않는다 鄧至國은 티베트족의 일파로北周의 保定 4년(564)에 멸망했고 周古柯國은 突厥이 滑國을 멸망시킬 때 아울러 소멸된 듯 한다<sup>6)</sup>.”

3국의 국사 모두 둥근옷깃에 좁은 소매는 긴 편이며 옷깃 수구 옆 옷단에 넓은 異色褙를 대었고 옆이 가슴 중앙에서 여며지며 龜茲국사는 右襟이나 2국사는 左襟이다. 옷길이는 周古柯국사는 발목정도이고 2국사는 종아리 정도의 길이이고 구자국사와 등지국사는 가는 대를 띄었고 周古柯국사는 가는 끈을 매었다. 3국사 모두 무늬있는 靴를 신었다.

이상을 살펴본 결과 도(1)과 (3)은 단령의 형태가 같고 도(2)는 唐代의 단령과 같다. 당대의 단령은 옷깃은 둥글고 젓혀서도 입고 옆이 있고 右襟이며 옆트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

소매는 길고 端袖가 있는 것도 있으며 옷단에 襪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고 옷길이는 종아리 정도 오는 것과 조금 더 긴 것도 있다.

唐代의 西域의 여러민족중 吐蕃(티베트)과 위그루(투르크=敕勒의한 부족으로 744년부터 100여년간 북몽고 통치)의 여러 벽화<sup>7)</sup>를 고찰하고 다음과 같은 假說을 제기해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더 많은 자료로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南北朝시대엔 褙가 없는 團領과 옷깃·옆수구·옷단에 異色褙가 있는 團領과 衣色과 同色褙가 있는 團領 3가지 종류가 있었다. 둘째 異色褙가 있는 단령은 위그르인에게 계속 입혀졌다. 셋째 衣色과 同色褙가 있는 단령과 褙가 없는 단령은 漢族에게 채용되었고 점차 그 형태가 변화되어 당대의 단령과 같이 되었다. 즉 선이 없는 단령의 옆선을 터서 옆트임을 만들었을 경우와 衣色과 同色褙가 있는 단령은 그대로 혹은 옆선을 터서 옆트임을 만들었을 경우이다. 넷째 위그르에서는 무늬있는 옷감을 많이 사용했다. 다섯째 형태변화의 과정은 가슴 중앙에서 衣色과 同色褙 넓이만큼 여며졌던 옆부분이 넓어 지면서 옆이 되었고 차츰 가슴의 2/3를 덮을 정도가 되었다. ② 옷길이가 길어지면서 옷단에 있었던 同色褙의 넓이가 비례로 넓어져 넓은 襪이 되었다(구당서에 계급에 따라 衣色과 같은 襪을 加하라고 했고 도(18,20,21)에는 襪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동시에 보인다.) ③ 소매길이가 길어지면서 수구의 선이 비례로 넓어져 정창원袍에 있는(표 1) 端袖가 되었다(도 7) 唐代의 벽화(도 13,14)에서도 분별해 낼 수 있는 것이 몇개 있었다.

## B. 唐(618~907)의 團領(常服)

唐代의 “衣裳에는 常服·公服·朝服·祭服 4등

5) 李弘植 韓國古代史의 연구 “梁職貢圖論考”(신구문화사 1973) p.389

梁職貢圖는 梁武帝가 천하에 군림해서 40년이 되었을 때에 諸外國이 梁에 사절을 보내 朝貢한 것을 기록한 것으로 梁元帝蕭繹의 作이라고 한다. 당시 荊州에 刺史였던 蕭繹이 荊州에 온 外國人의 용모 풍속을 관찰하고 京師建康에만 왔던 사절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람을 보내어 조사시켜 편찬한 것이다.

6) 바로 앞책 pp.387~388

7) ① 吐峪溝발견 佛畫단편 ② 바질리크발견 위그루의 관리 및 귀족 ③ イデイクチエノ리사원 및 왕궁발견 幡과 위그루人의 매사냥과 주악 ④ 셀치엑발견 벽화 ⑤ 무르티크 발견벽화 ⑥ 高昌 景教寺院址 발 견벽화 단편 ⑦ 高昌摩尼敎사원 址발견 벽화단편 ⑧ 키질 발견 벽화단편 ⑨ 돈황석굴 137굴 벽화 ⑩ 돈황석굴 84굴 벽화 이상은 唐代의 服飾도판 참조. ⑪ 吐蕃王이 唐太宗의 공주에게 장가들려 온 장면(염입본 作. China Art in History)

舊唐書에 의한 常服의 변천

	3품 이상			5품 이상			6~7품			8~9품			庶人	
	武德 (621)	貞觀	上元元年 (674)	武德	貞觀	上元	武德	貞觀	上元	武德	貞觀	上元	武德	上元
옷감	大科紬綾 綾羅	5년 龜 甲雙巨 十花綾		小科紬綾	5년 龜 甲雙巨 十花綾		雜小綾 交梭雙 紵紗布	5년 3品 과같다		紬縹布	紗布 및 雜小綾		紬縹布	
색	紫	4년 紫 5년 綠	紫	朱	4년 5년 深緋 綠	4품 5품 深緋 淺緋	黃	4년 5년 綠 綠	6품 7품 深綠 淺綠	黃	4년 5년 靑 靑	8품 9품 深靑 淺靑	黃	
飾	玉			金			銀			鍮石			銅鐵	
笏	象 前挫後直			象 前挫後屈			竹木 上挫下方			竹木 上挫下方				
冠	折上市			折上市			折上市			折上市			折上市	
靴	六合靴			六合靴			六合靴			六合靴			六合靴	
帶		鍮石 (5년)	金玉		鍮石 (4년)	金		鍮石 (5년)	銀		鍮石 (5년)	鍮石		銅鐵

※ 笏은 唐이래로 위는 圓, 아래는 모진 것이 있어 分別이 없어졌다(自有唐已來, 一例上圓 下方會不分別)  
 ※ 貞觀 四年(630) 婦人從夫色 雖有令仍許通著黃  
 ※ 總章元年(668) 始一切不許着黃

의 制가 있었는데<sup>8)</sup> 이 중에서 常服은 늘 입는 보통옷으로 團領을 의미했음을 舊唐書로 알 수 있다. 즉 “요사이 常服이라고 하는 것은 讎服이나 褻服(평복 사복)을 말한다...元正大會를 제하고는 임금의 뵈을 때나 절에 출입할 때 一切 通用된다. 또한 高氏諸에 唐代 帝의 常服은 緋色이다. 隋代에는 帝·王·貴臣 모두 黃色文綾袍에 烏紗帽 九環帶 烏皮六合靴를 착용했다. 百官의 常服은 서인과 같이 黃袍를 입고 대궐에 출입한다<sup>9)</sup>.

女子의 단령 착용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사진(표 2 참조)을 통해 보면 女子 시종들도 많이 착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상류층 부인들은 直領 깃 저고리와 치마를 입고 袿를 두르고 있었다.

漢族에 채용되어 唐代에는 常服으로 널리 입혀지게 된 胡服인 단령은 여러번 改定되었다.

구당서<sup>10)</sup>에 의하면 武德(高祖)초의 天子 상복은 隋의 舊制를 따라 황색 袍나 衫을 착용했고, 후에 차츰 赤黃色을 입었는데, 士·庶人은 적황색과 여러장식을 금했고, 4년(621) 8월에 백관

의 服色을 정했고 貞觀(太宗) 4년(630년)과 5년(631)에 개정했으며 總章(高宗) 元年(668)에 始一切不許着黃]했고 上元元年(674) 8월에 개정한 것을 표로 만들어 보면 위와 같다.

1. 團領(常服)의 形態

明은 唐의 제도를 좇아 團領을 상복으로 정했고 구당서의 기록과 같은 형태의 옷을 天子에서 서민에 이르기까지 입었으므로, 「大明會典」의 天子의 常服圖를 중심으로 초상화 회화 벽화 俑(표 2 참조)을 대조하고 밀발침 자료로 正倉院 보물을 참조해서 형태를 推定한다.

a. 옷깃(領)

章懷太子墓벽화(도 4)外 37종을 살펴본 결과 둥근 옷깃모양은 같았으나 목이 보이게 혹은 턱 밑까지 바짝 치켜그린 두가지 표현이 있었다. 도(4)를 보면 둥근 옷깃을 젖혀서 입어 마치 현대 양복 collar 비슷한 데 그속에 紅色 직령깃인 裏衣를 입고 있는 것이 보였고 젖히지 않고 입

8) 二十五史 唐書志 “舊唐書卷四十五 輿服志第二十五”(開明書店鑄版) p.3256

9) 바로 앞책 p.3258

10) 바로 앞책 p.3258

였으나 목이 많이 파인듯이 그려져 있지만 裏衣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목이 보이게 하였으나 裏衣의 옷깃이 보이지 않는 것은 옷깃의 파임이 적은 것으로, 裏衣의 옷깃이 겹으로 보이고 있는 것은 파임이 많은 것으로 분류했다. 閻立本(?~673)作 당태종納諫圖(도 5) 韓滉(723~789)作 文苑圖(도 6)는 裏衣의 옷깃이 겹으로 보이게 파임이 많은데 이 두 작품을 제외한 다른 작품의 옷깃파임의 양은 모두 적었다. 일본 聖武帝(724~749)時代 물건을 보존한 正倉院 寶物중(표 1) 常服(단령)형태인 5종의 袍의 옷깃파임은 적으나 紫緇袍(도 7, 파임 7cm 고대 19cm)와 布袍(파임 10cm 고대 15cm)의 파



(圖 4) 章懷太子墓狩獵出行圖 (중국의 미술 II)



(圖 5) 당태종納諫圖(중국圖像選萃)

임은 많은데 이 정도로 파이면 裏衣의 옷깃이 겹으로 보인다. 그런데 비슷한 年代인 蘇思勗 묘(745)의 舞樂圖(도 8)와 如意를 들고있는 男子像, 吳守忠묘(748)출토 女俑(도 9)과 韓幹(720~760전후)作 木馬圖, 周昉(韓幹과 동시대人)作 揮扇



(圖 6) 韓滉의 文苑圖(China in Hi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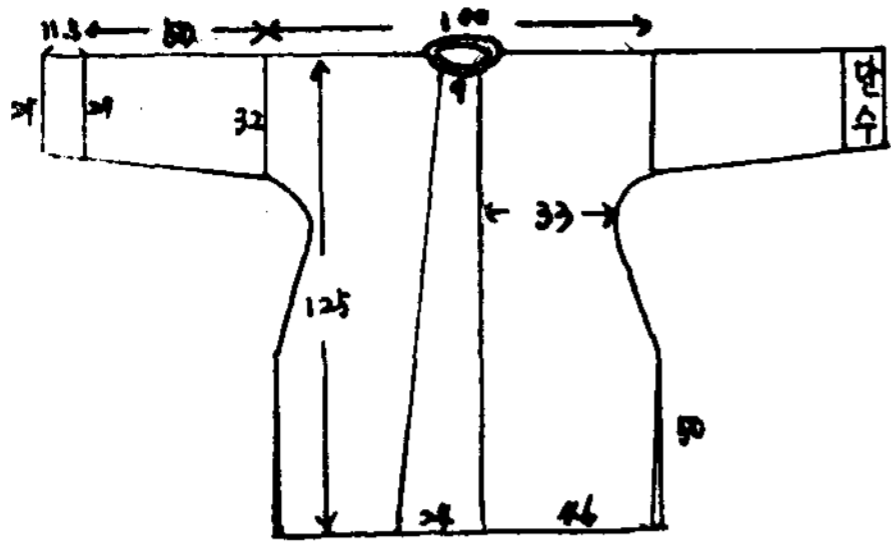
仕女圖(도 10)의 파임은 적다. 이상으로 보아 724~789 사이에 파임이 많아지지 않았을가 추측 해보며 당태종납간도는 모사과정에서 변형되지 않았을가 의문을 던져본다.

실제로 만들어 본(1976년 제작. 현재 한국방 송공사에 있음) 결과 깃넓이 2cm 길이 68cm의 직각각형의 형질을 목에 둘러 대었더니(고대 20cm, 파임 7cm) 같은 모양이 되었다. 또한 정창원 보물중 단령형태와 같은 袍의 실측표(표 1)를 보면 옷깃넓이는 2~3.5cm이고 파임은 5~10cm로 둥글게 꿰고, 고대는 14~20cm로 고대가 좁으면 파임이 많았고 고대가 넓으면 파임이 적었다. 또한 안깃길리와 겹깃길리가 똑같고 매듭단추를 옷깃끝에 각각 달았다. 도(4), 韋洞墓 벽화중의 2인의 男子像, 永泰公主墓벽화의 3인의 시녀(도 12)唐墓벽화의 남자상은(도 13) 옷

표 1 正倉院寶物中 常服형태포(단령)의 實測表(cm)

袍 名	옷길이	깃		고 대	위 섹 (左안깃) (右겉깃)	화 장	수구넓이 (端袖넓이)	무 의 옆트임	겨드랑 밑파임	색과 옷감
		파 임	넓 이							
大 歌 袍	141		3.2	16	11	115.5	24 (11.5)	5.5		겉안 녹(綾) 백(緇)
紫 緇 袍	135.5	7		19(12)	12	114	26.5(13.5)	44	5.5	紫 緇
布袍(夕米淨衣)	118	10	2	15( )	11.5	103	21.5( )	35	4.5	布
紅纁纁布袍	125	5.5	3	20(12)	12	114	25(20)	47		紅 布
白 緇 單 袍	100	7	2	14( )	10	107	20 21	44	6.5	白 緇
紅 緇 單 袍	110		3.5	20( )	10	102	(12)12	50	6	紅 緇
黃 布 袍	122	5	3.5	19(14)	14	96.5	27 ( )	53	2	黃 布
笛 吹 袍	125				9	115.5	27 (11.5)	50	8	겉안 紅染薦纁 綠 緇

(奈良朝服飾の研究 圖錄編의 실측도를 보고 작성한 것임)



(圖 7) 正倉院 笛吹袍(奈良朝 服飾の研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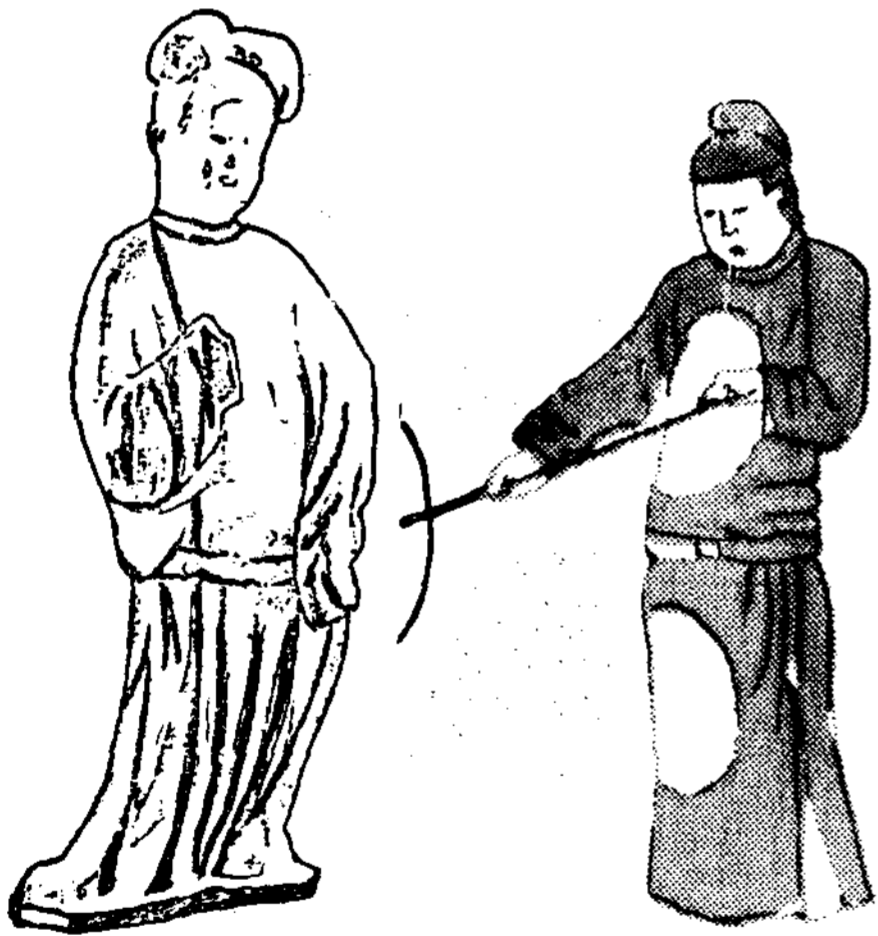
(圖 12) 永泰公主墓의 시녀들(중국미술 II)



(圖 8) 蘇思勳墓 舞樂圖(唐代의 服飾)



(圖 13) 唐墓壁畫(당대의 복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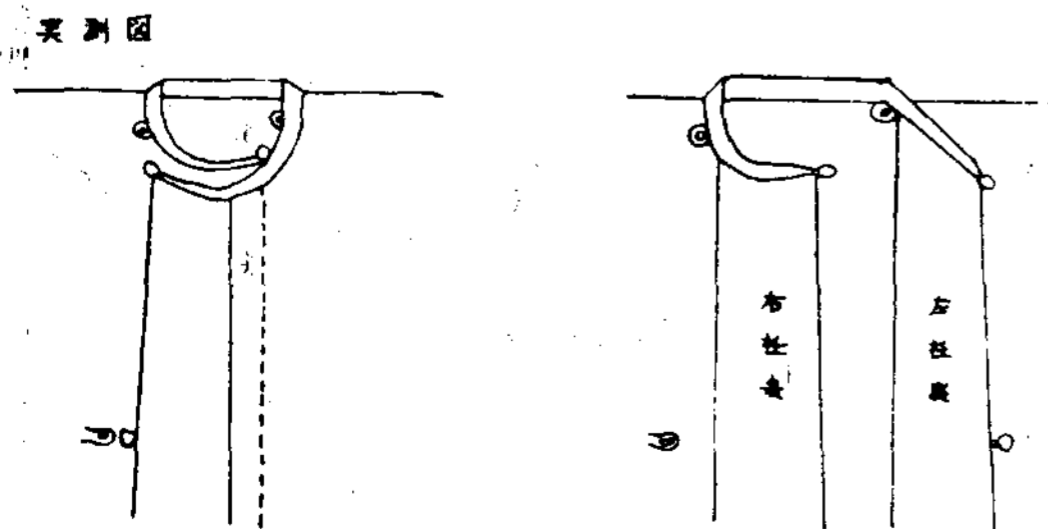


(圖 9) 女俑(당대의 복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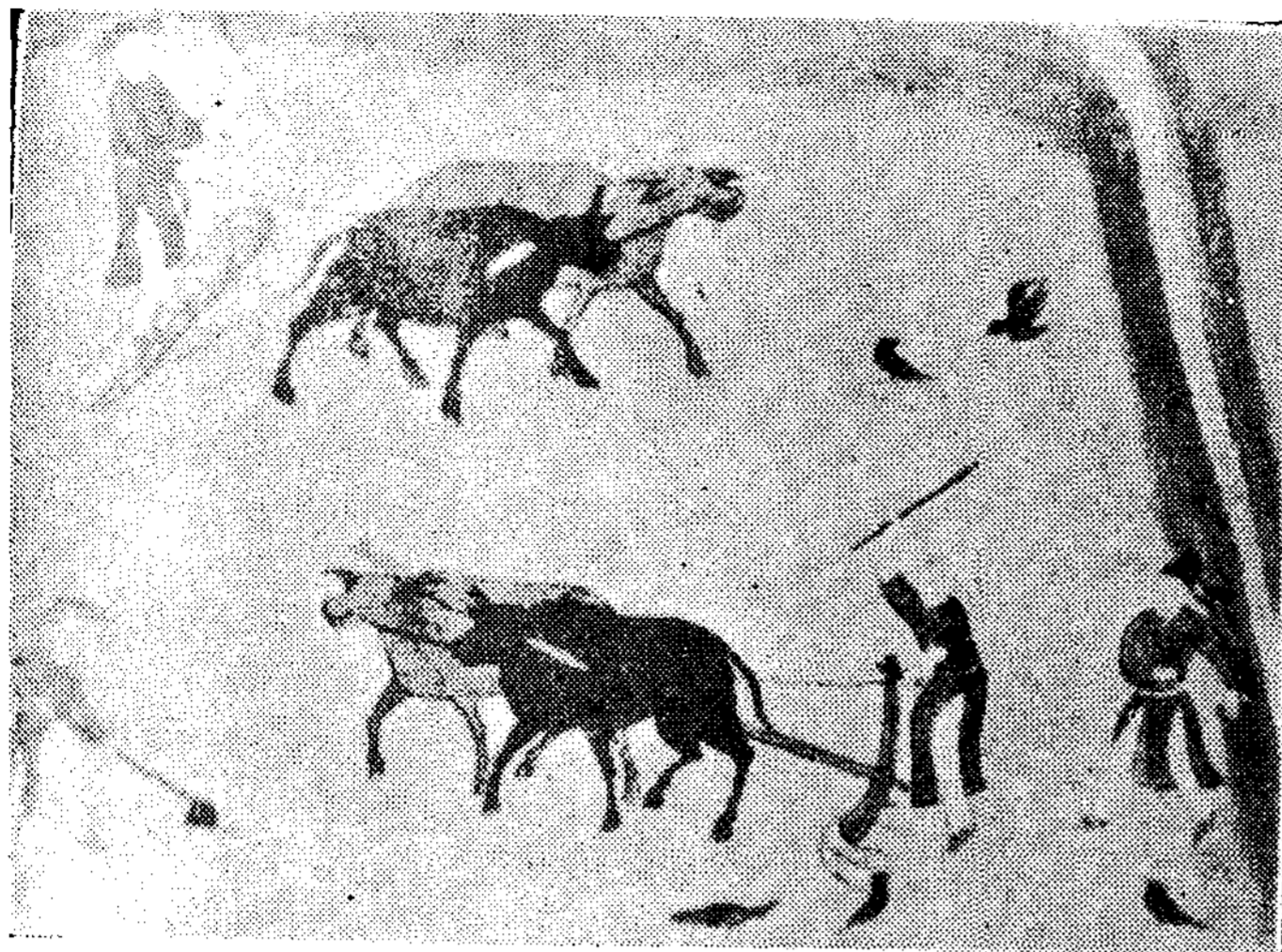
(圖 10) 揮扇仕女圖(중국미술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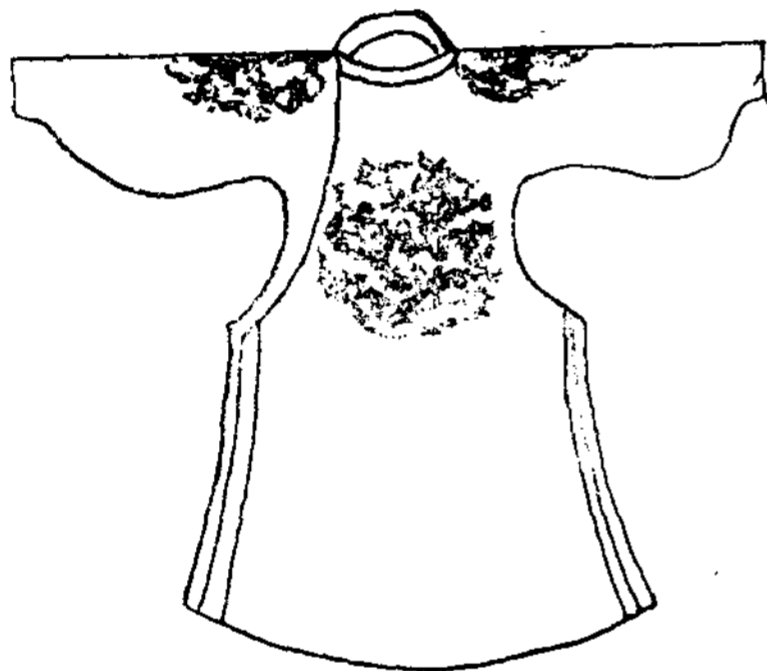
(圖 14) 觀鳥捕蟬圖(중국미술 II)



(圖 11) 정창원 袍의 옷깃모습(奈良朝 服飾の研究)



(圖 15) 경작도(돈황천불동 벽화, 대당의 번영)



(圖 16) 天子常服圖(大明會典)

깃을 젖힌 모양이 左右가 같은 것으로 보아 정창원袍와 같이 안깃길리와 겹깃길리가 같아 보이며 옷깃끝에 매듭단추가 각각 달려있다.

b. 소매(袖)와 옷길이

소매는 窄袖이며 도(8)과 章懷太子墓의 觀鳥捕蟬圖(도 14)는 直배래이다. 매우 긴 화장은 주름이 많이 잡혀진 모양으로 표현되었는데 敦煌千佛洞石窟(도 15)의 벽화에서 소물고 밭가는 농부들 4인과 328窟의 菩薩像에서 긴막대 같은 것을 들고 있는 남자시종 같아보이는 사람의 소매는 손목정도의 길이로 짧았고 옷길어도 종아리 정도로 짧았다.

“정창원袍 8着的 화장은 매우 길고(96.5~115 cm)直배래로 진동보다 수구가 좁다(도 7). 소매 넓이는 窄袖이며 4着的 袍·수구쪽에 11.5~21

cm넓이의 端袖가 붙어 있는데 端袖란 소매끝에 붙었다고 해서 關根眞隆이 「奈良朝服飾の研究」에서 붙인 명칭인 것 같다. 옷감이나 색이 길과 같은 것으로 보아 화장을 길게 하기위해 다른 폭을 덧붙인 것은 아닌지 의문을 던져본다. 「大明會典」의 皇帝 常服圖(도 16)의 소매는 불룩나온 배래 끝에 직사각형으로 뾰족하게 나온 모양은 端袖의 존재를 느끼게 한다<sup>11)</sup>.

옷길이는 종아리정도의 짧은것, 발목과 종아리 사이정도, 발목까지 오는 긴것과 땅에 닿을듯이 아주 긴것이 있었다. 唐墓벽화 2인의 男子, 李爽묘벽화(도 17) 피리부는 남자, 돈황천

불등석굴(도 15) 5인의 농부및 章懷太子墓 27인의 수렵하는 기마인들이 짧은옷(종아리 정도)을 입고 있는데 활동하기 편하기 때문인 것 같다. 趙澄之墓벽화에서 2인의 관리(도 18)와 侍男侍女(도 19) 각 1인씩, 韋洞벽화의 男女像(도 20)과 侍男侍女像, 章懷太子묘벽화의 侍女및 永泰公主묘벽화의 2인의 관리(도 20)와 4인의 侍女の 옷길이는 발목과 종아리 사이의 길이이다. 永泰公主묘의 侍女와 돈황천불동 328窟의 관리 4인 및 韓滉의 文苑圖(도 6)에 관리 3인은 발목까지 오는 긴 길이이고 周昉의 揮扇仕女圖(도 10)와 도(9)의 女人들은 땅에 닿게 긴 길이이다.

도(6)으로 보아 옷깃이 많이 파여진 것과 옷길이가 길어진 것에 어떤 비례관계가 이루어진 것 같다.

c. 무와 옆트임

무는 따로 재단한 것을 대지 않았고 대부분 옆트임이 있었으나(도 3, 10, 14, 15, 17, 20) 그림이 확실치 않아 옆트임을 분별할 수 없었던 것도 있었는데 정창원袍와 비슷한 치수였으리라고 생각된다.



(圖 17) 李爽墓壁畫(당대의 복식)

정창원袍(도 7)의 무 모습은

11) 拙稿 “袞龍袍의 形態에 대한研究” 서울여자대학논문집 제 7 호(1978) p.282



(圖 18) 趙澄之墓壁畫(당대의 복식)



(圖 19) 趙澄之墓壁畫(당대의 복식)

大明會典(도 16)의 常服圖와 형태는 비슷하나 옆트임의 길이도 짧아 보이고 따로 재단하여 대지않은 무의 넓이도 좁아 보인다. 정창원袍(표 1)는 겨드랑 밑에서 부터 더 아래로 2~8cm 둥글게 파주고 무를 따로 대지 않은 대신 넓게 만들었고 옆트임은 35~55cm이다.

도(5, 6, 19, 20, 21)에는 옷단쪽에 옷길이의  $\frac{1}{4}$  ~  $\frac{2}{3}$  정도에 橫線이 있는 常服과 橫線이 없는 常服 2종류가 보인다. 또한 도(6, 20)의 橫線이 있는 常服의 옆트임은 없는것 같아 보인다.

중국 복장사상에 “貞觀 4년 5년에 品官服色을

정하여 3품이상은 紫……袍를 입는 사람은 緋紫綠色을 其品에 따라 아래에 襴을 加하며 庶人은 白色이다”<sup>12)</sup>. 즉 衣色과 같은 色의 襴을 加하라는 것이므로 2종류가 있었다는 의미도 되며 혼용된 것 같다.

d. 衿(衽)과 여밈

衿선이 대부분 보였다. 정창원袍의 衿선길이 (11~14cm)와 비슷 했으리라고 본다. 여밈은 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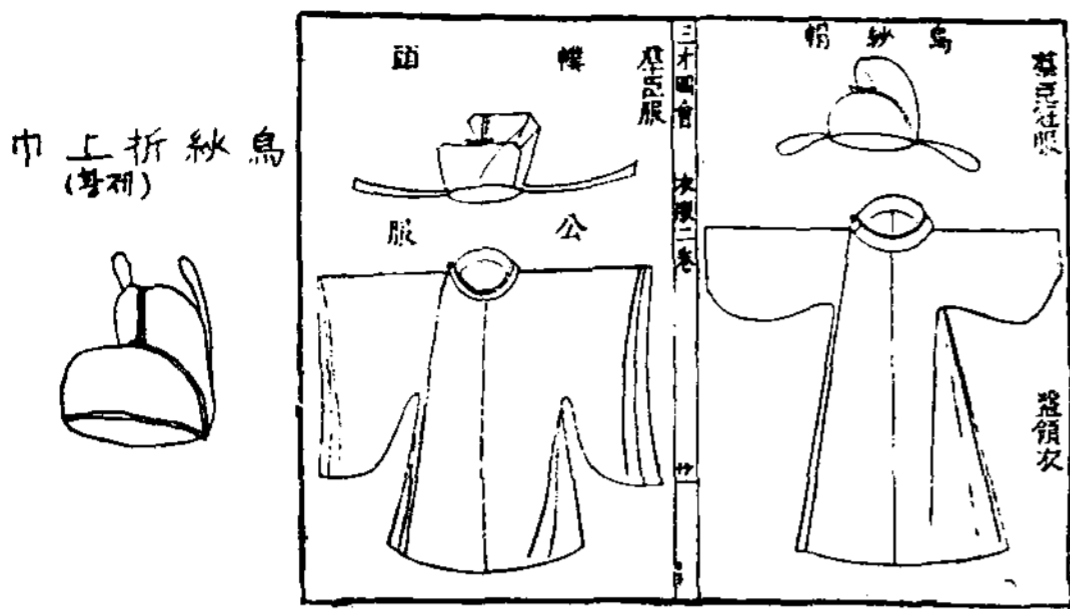
(圖 20) 韋洞墓 石槨線刻畫(당대의 복식)



(圖 21) 永泰公主墓 石槨線刻畫(당대의 복식)

12) 王宇清 中國服裝史綱(中華大典編印會, 臺北中華民國五十六年) p. 191





(圖 22) 公服과 整領衣(三才圖會)

엇인지 확실히 보이는 것은 없었으나 정창원袍와 같이 가슴 아래부터 허리 윗부분쯤에 매듭단추를 달았을 것이다.

e. 色

彩色된 18종(표 2)을 고찰한 결과 책에 따라 같은 그림인데도 색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대체로 구당서의 기록과 같았다. 天子는 緋色과 黃色 常服을 착용하였다. 현재 관리인지는 모르지만 시종을 거느리고 말을타는 모습이나 가야금 연주를 듣고 있는 모습등 그림의 분위기로 百官(관리)으로 분류 했는데 紫 緋 靑 분홍 짙은 고동색 단령을 입고 있었다. 분홍색은 淺緋色인것 같고 짙은 고동색은 기록에 없었던 색이며 綠色은 찾지 못했다.

樂人은 도(8)과 鮮于庭誨墓출토 陶俑(낙타위의 樂人)은 미색과 緋色과 綠色단령을 입고 있었고 시녀들은 紫 緋 靑 분홍 청록색을 입었으며 도(10)은 가슴과 배 부분에 꽃문양이 둥그렇게 있는 紫色 단령을 입고 있다.



(圖 23) 송 휘종作文會圖(고궁 명화 선채)

f. 帶와 笏

帶는 上元 元年(674)에 3품이상은 金玉帶 5품이상은 金帶 6,7품은 銀대, 8,9품은 鍮石대, 서인은 銅鐵대로 정했는데 구당서의 기록과 같이 착용되었는지 그림으로는 자세히 알수 없었다. 女子들은 帶 혹은 衣色과 같은色 형질머나 白色 형질머를 매고 있었는데 그때의 넓이에 넓고 좁은 차이가 있었고 매는 방법도 다른점이 있었다.

笏은 도(18, 20, 21)의 5인과 敦煌千佛洞 217窟 化城喻品圖에서 4인이 笏을 들고 있는데 그 형태가 구당서의 기록과 같은지 잘 알 수 없었다.

g. 두식과 신

구당서에는 천자부터 서인까지 折上巾을 썼다는 기록과 烏紗帽를 썼다는(주 9 참조) 2가지 기록이 있다.

송사여복지에 절상건은 일명 幞頭라는 기록이 있고 三才圖會에는 황제상복(곤룡포)에 쓰는 익선관을 烏紗折上巾(도 22)이라고 했다. 당대의 사진(표 2)과 三才圖會의 紗帽와 幞頭(도 22)를 비교해 보면 紗帽와 닮았다. 처음엔 紗帽와 절상건의 형태가 비슷하지 않았나 생각되나 더 깊은 연구 후에 결론지어야 될 것이다. 농부들은 넓은챙이 있는 笠을 쓰고 일하는 모습도 보였다

신은 六合靴를 착용하라 했는데 履도 있었고 여러 종류의 신이 보였다.

C. 宋(960~1279)의 團領

당대의 단령은 송대에도 계속 평복으로 천자에서 서민까지 착용했다. 송대엔 公服을 常服이라 했는데 관리의 시무복이라는 의미를 갖게 됐으며 당대의 단령색을 모방했다. 즉 「宋史輿服志」에 “公服은 具服이라하는 朝服보다 간략한 것이며 요사이 常服을 말한다. 宋은 唐制를 모방했는데 3품이상의 服色은 紫色 5품이상은 朱色 7품이상은 綠色 9품이상은 靑色이다. 그 制는 曲領에 大袖이며 아래에 橫襴을 붙였다. 革帶를 맸고 幞頭를 썼으며 烏皮靴를 신었으며 王·公에서 士人까지

지 通用됐다<sup>13)</sup>. 관원의 窄袍團領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天子의 것은 언급되었은 즉 “天子의 常服 3가지중 窄袍가 있는데 임금의 便坐時事服이며 折上巾을 쓰는데 烏紗帽를 쓸 수 있다<sup>14)</sup>고 했다.

1. 常服의 형태

송의 徽宗(1082~1135)作 文會圖(도 23)의 6종(표 3)과 顧闳中的 韓熙載夜宴圖(도 24)와 五代(906~960)의 宮樂圖와 元(1206~1370) Jen Jenfa作 종마와 3人(도 25), 趙孟頫(1254~1323)의 調良圖, 趙麟(1312~1365)의 相馬圖를 참조했다.

a. 옷깃(領)

도(23)과 五代의 宮樂圖와 송 仁宗后坐像(1034황후가 됨 도 26)에서 양옆에 서있는 女官들의 단령과 도(24)의 옷깃과 임은 비슷하다. 그러나 더 깊게 파인 단령 착용 모습은 못 찾았지만 元代의 도(25)단령의 옷깃과 임은 매우 깊어 曲領(公服)의 말기 형태와 같다.

송 仁宗의 公服과 임과 仁宗后 左右에 서있는 女官의 단령 옷깃(도 26)이 같은 것으로 보아



(圖 24) 韓熙載夜宴圖(중국미술Ⅱ)



(圖 25) Jen Jen fa作 종마와 3人 (China, History in Art)



(圖 26) 宋 仁宗后 坐像(고궁도상선채)

둥근옷깃인 公服과 단령의 파임은 비슷하게 변화된 것 같다. 참고로 公服의 옷깃파임의 변화를 살펴보면 “幞頭に 曲領大袖(公服)를 착용한 宋의 太祖(960~975) 太宗 仁宗 및 神宗(도 27, 1068~1085)의 옷깃넓이와 파임이 거의 비슷한데 도(28)의 司馬光(1019~1086)의 옷깃넓이보다는 좁고 파임도 적다. 司馬光의 옷깃넓이는 넓고 중단깃이 많이 보이게 파였고 方心曲領을袍에 직접 달았다.

高宗(도 29, 1127~1102)과 理宗(1225~1264)의 公服袍의 옷깃모양과 파임도 司馬光과 같으나 方心만 없다. 몇년부터인지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송代엔 이미 옷깃이 넓어졌고 많이 파인것 같다.”<sup>15)</sup>

이상과 같이 송代의 단령 옷깃을 살펴본 결과 정바이야스로 재단하여 심을 넣고 옷깃 윗편을 오그리고 길쪽에 붙는 편은 늘려서 만든 朝鮮王朝의 團領의 옷깃 형태(도 30)와 같아 보인다. 만일 唐代와 같이 좁은 직사각형의 길다란 형질(도 30)으로 만들었을 경우 편편하고 반듯한 둥근깃이 아니고 구겨진 둥근깃이 될 것이다.

b. 소매(袖)와 옷길이

소매는 窄袖이며 매우 긴 화장은 당대와 같이 주름이 많이 잡혀진 모양으로 표현되었다. 진동

13) 宋史 第三册 宋史志卷第一百六 輿服五(中華學術院印行 中華民國 64년) p.1436

「公服 凡朝服 謂之具服 公服從省 今謂之常服 宋因唐制 三品以上 服紫……五品以上 服朱 七品以上 服綠 九品以上 服青 其制 曲領 大袖 下施橫襴 束以革帶 幞頭 烏皮鞋 自王公至一命之士 通服之」

14) 바로 앞책 p.1424

15) 拙稿 “袞龍袍의 形態에 대한연구” p.2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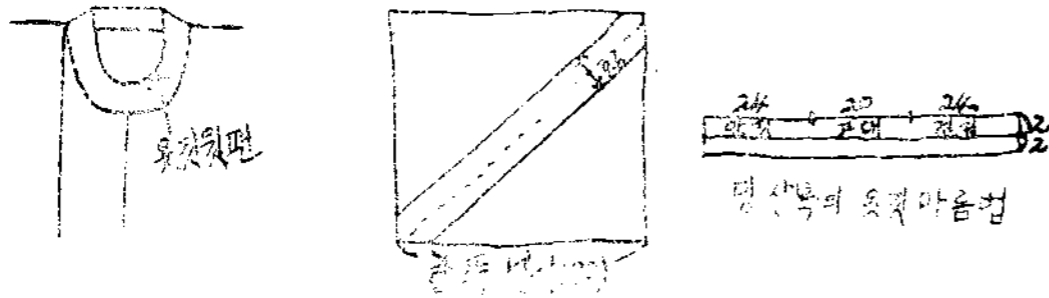
(圖 27) 宋 神宗



(圖 28) 사마광



(圖 29) 宋 高宗



(圖 30) 조선왕조시대 團領 마름질법

보다 소매가 좁은 直배래 인듯 하며, 端袖의 有無는 잘 알 수 없었다. 도(25)와 趙孟頫의 調良圖는 元代의 상복 착용모습인데 直배래이고 긴 소매를 만들기 위해 폭을 낸듯한 線이 보인다.

도(24)의 옷길이는 唐代와 같이 발목과 종아리의 중간 정도오는 길이였으나 송대엔 모두 발목까지 오는 긴 옷(도 23, 24, 25, 26)이었다. 그러나 시종들(도 22)의 옷길이는 발목까지 오는 것과 종아리까지 오는 것 2종류가 있었다. 돈황 석굴 61호 耕作圖의 농부들, 짐나르는 사람, 役人들의 옷길이는 종아리까지 오는 짧은것을 허

리에 치켜 올려 끈으로 매었고 소매길어도 손목까지 오는 짧은것인데 당대와 같았다. 張擇端作이라고 전해지는 北宋의 수도 汴京(開封)의 상점 우마차 강 배 다리 성문 군중을 자세히 묘사한 清明上河圖를 보면 짐꾼 시종들도 매우 긴 소매와 종아리까지 오는 단령을 허리에 치켜 올려 입었는데 상류층으로 보이는 사람들이나 서민들은 直領옷깃의 여러 종류의 袍를 착용하고 있었다.

c. 무와 옆트임

무의 형태(도 23)는 당과같이 무를 따로 매지 않았다. 옆트임의 양은 唐과 비슷한 것도 있었고 明會典의 常服圖(도 16) 정도로 트인것도 있다.

무의 윗쪽이 옆으로 뻗도록 나온 모습(도 25, 26)은 明會典(도 16)의 무의 모습과 매우 닮은 것으로 보아 어느때 부터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무의 넓이가 점점 넓어지면서 무의 윗쪽도



(圖 31) 明 太祖(故宮圖像選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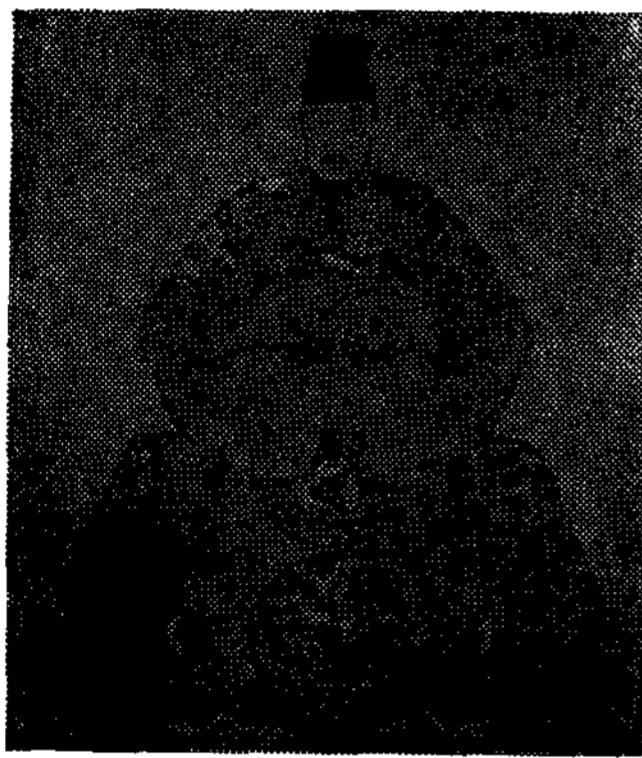
(圖 32) 宋濂(세계문화사Ⅳ)



(圖 33) Yang Jung's Apricot garden (China, History in Art)



(圖 34) 조선출정도(China, History in Art)



(圖 35) 明世宗(故宮圖像選萃)

옆으로 뽀족하게 나갔다고 생각된다.

橫線은 5代의 도(24)에서 賓客으로 보이는 3人의 黑色 常服의 옷단쪽에 옷길이의 1/4정도에 橫線이 보였다. 宋代엔 公服에 橫線을 施하라 (주 13 참조)했으며 明代엔 常服 公服 어느곳에도 橫線에 대한 기록이 없고 필자가 수집한 사진에서도 찾지 못했다.

d. 綰과 여밈

綰선이 보였다.

여밈은 唐과 같이 매듭단추가 사용됐다고 본다.

e. 帶, 頭飾, 신, 笏

徽宗의 文會圖와 聽琴圖의 文人들 남종 여종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음)은 모두 帶와 사모를 쓰고 있었고 白色의 履인지 靴인지 모를 신을 신고 있었는데 옷길이 혹은 바지 길이가 길어서 잘 알수 없었다. 도(26)의 左右에서 있는 女官

은 화려한 冠에 帶를 했고 옷 길이가 길어서 白色신의 신코만 보였다.

劉松年作(1190~1230전후) 羅漢의 남자시종은 검은색 巾과 검은색 絲帶에 미색 履를 신고 있다 돈황석굴 61호굴 경작도의 농부들은 紗帽 혹은 笠을 썼고 한사람은 허리에 옷자락을 치켜서 흰색 끈으로 매었는데 다른 두 사람은 잘 보이지 않으나 옷자락을 치켜 올린 것으로 보아 끈으로 맨것 같고 履를 신고 있다.

한희재 야연도(도 24)에서 賓客 6人和 樂士 4人 및 舞姬를(쓴 것 없음)은 紗帽에 帶靴를 착용하고 있었다. 五代 宮樂圖(표 3 참조)에서 女樂士와 여종은 帶를 했다.

元代 도(25)와 相馬圖, 調良圖에서 5人是 紗帽 帶 黑色靴를 착용하고 있었다.

笏은 宋에서는 公服에 들었다.

f. 色

文人은 緋色 분홍 灰綠色 靑色 黑色을 입었고 남자시종은 연고동 흑색 미색 여자시종은 청색 회록색 연고동색 백색을 입고 있었다. 仁宗后의 左右에서 있는 女官(도 26)은 黑色에 작은 꽃무늬가 옷 가득히 있다.

後唐의 莊宗은 靑色 단령을 입고 있었고 五代의 賓客은 緋色 黑色을 樂士중 남자들은 黑色을 女子는 연黃色을 舞姬는 靑色과 綠色을 입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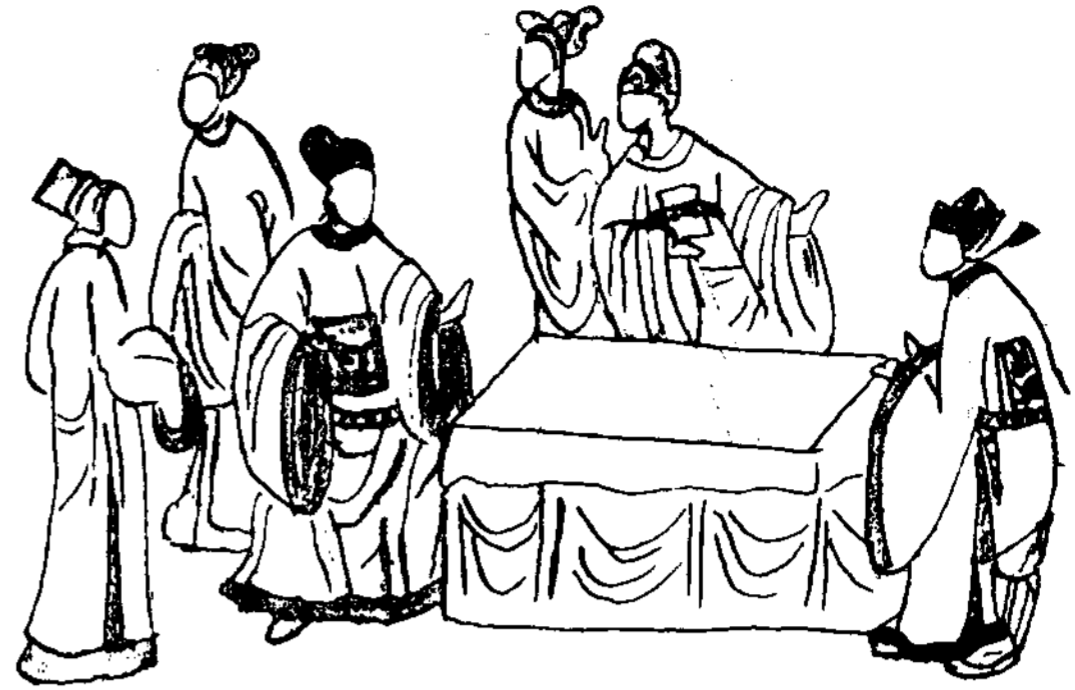
元代엔 相馬圖에서는 緋色, 종마와 3人(도 25)은 緋色과 灰色을 입고 있었다. 원대의 거리 풍경을 묘사한 Street scenes in peace time에서 시민들은 송대의 직령깃인 여러 종류 袍를 입고 있는데 그중 綠色 黃色 단령을 착용한 모습이 보이는데 머리 에는 巾이나 帽頂에 꼭지가 있는 둥근모자(몽고풍)를 쓰고 있다.

D. 明(1368~1644)의 團領(常服)

明太祖(재위 1368~1398)의 “羣臣의 冠服은 唐制度를 좃으라<sup>16)</sup>는 命에 따라 唐代와 같이“朝服 祭服 公服 常服 四等의 制를 두었는데 公服은 宋의 公服과 같았고 常服은 洪武 3년(太祖

16) 王字清 中國服裝史綱 p.194

3년)에 文武官 常朝視事服으로 烏紗帽 團領衫 束帶(公服과 같다)를 定했고 洪武 23년에는 사람의 몸 크기에 맞추어 制度를 정했으며 26년에는 服色과 상복에 계급에 따라 花樣이 다른 補(襟)를 달게 하였다. 景泰 4년(代宗 1453) 順川 2년(英宗 1458) 成化 2년(憲宗 1466) 弘治 13년(孝宗 1500) 嘉靖 6년(世宗 1527)과 16년에 服色花樣에 대해 정했다.”<sup>17)</sup>. “士庶巾服은 초기의 四角巾이 四方平定巾으로 개정되었고 黃色을 제외한 雜色 盤領衣를 착용하도록 했다.”<sup>1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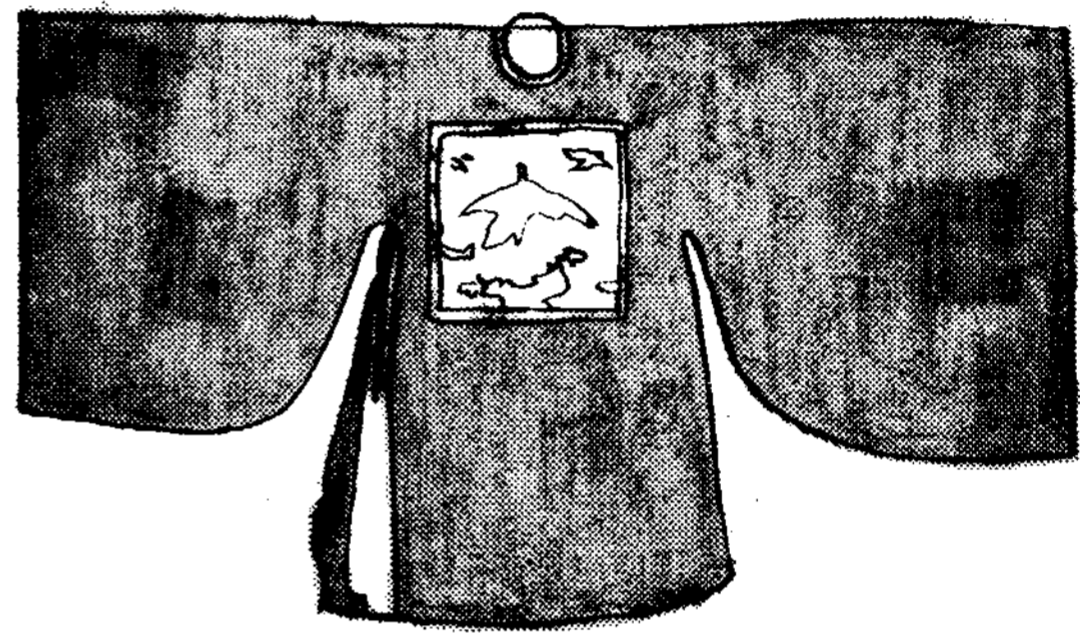
(圖 38) Three Kingdoms(China)

### 1. 단령(상복)의 형태

天子에서 서민에 이르기까지 단령(상복)의 형태는 같고 옷감의 質과 花樣이 다르다. 「大明會典」의 天子常服圖(도 16)外 15종을 참조하여 형태 변화를 알아 본다.



(圖 36) 張巨正(세계문화사 IV)



(圖 39) 絳色常服(중국복장사강)



(圖 37) 上杉景勝의 蟒衣(중국문화의 상속)

#### a. 옷깃(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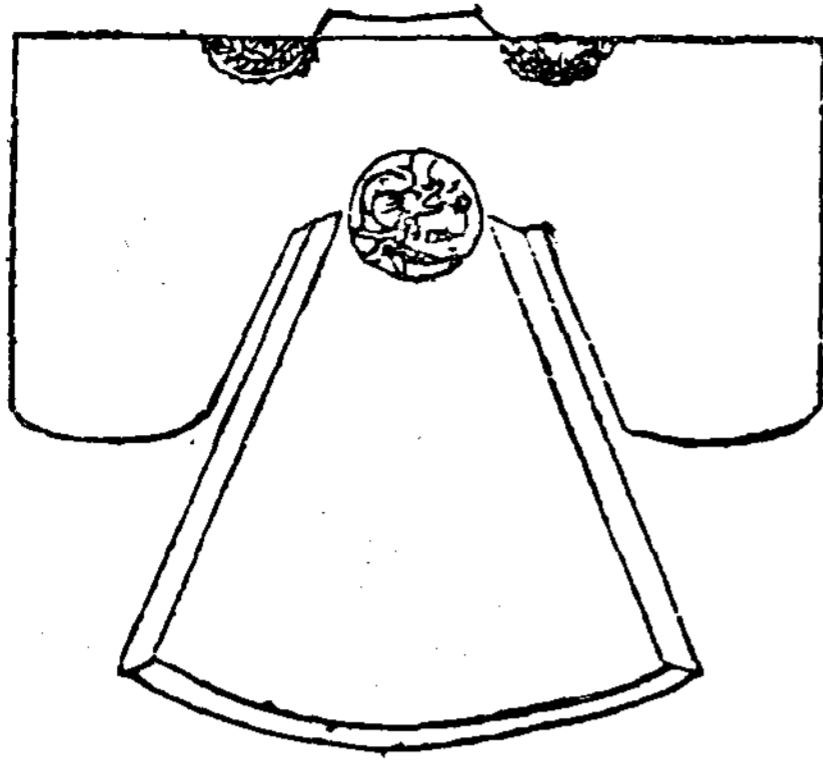
「大明會典」의 군신복의 옷깃은 團領으로 표현되었고 天子常服(도 16)의 옷깃과 「三才圖會」의 관복도(도 22)에는 盤領으로 표현되었다. 그런데 도(16)과 도(22)의 옷깃 모양은 같고 明太祖像(도 31), 태조시대의 文人으로서 제일인자였던 宋濂像(도 32)의 옷깃모양도 같다. 이상으로 보아 團領과 盤領은 다같이 둥근 옷깃으로 같은 의미였었는데 “朝鮮王朝에서 末期에 盤領은 옷깃의 파임이 적은 것을 의미하게 된 것 같다”<sup>19)</sup>. 도(33, Yang Jung's Apricot Garden 1437년 4月)에서의 옷깃과 于謙(景帝(1449~57)를 도와 공을 세움)像은 도(31, 32)보다 파임이 많으며 이보다 100여년 후인 도(34, 35, 36)은 더욱 파임이 많다. 즉 도(34)는 明이 1598년 朝鮮의 임진왜란때 朝鮮으로 원정갔었던 \*출정도가 두루마리에

17) 大明會典 卷之六十一禮部十九 pp.1057~1059

18) 王宇清 中國服裝史綱 p.195

王圻 三才圖會卷四(成文出版社 1970) p.15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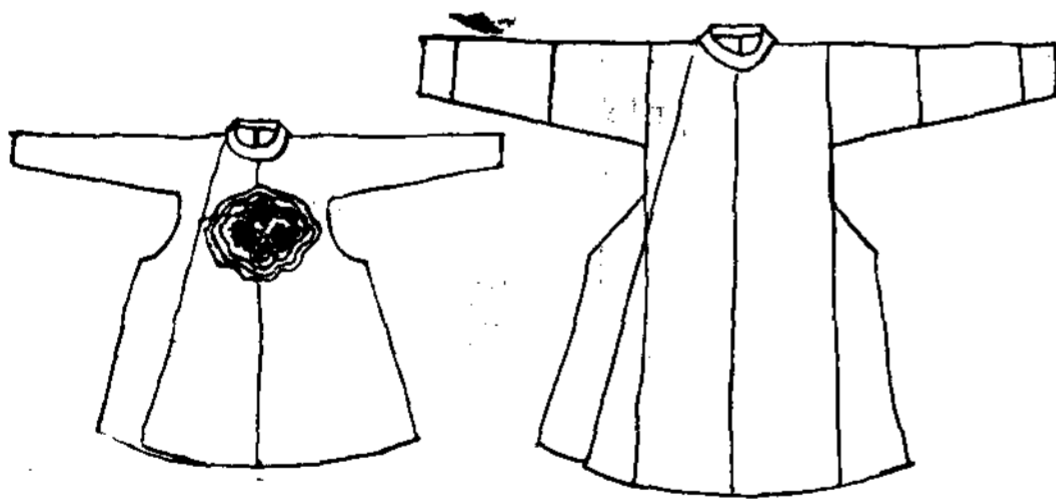
19) 朝鮮王朝實錄에 의하면 高宗 21年 5月 甲申衣服개혁 및 高宗 31年 6月 甲午更張때 官服은 國初의 制樣을 따라 盤領窄袖로 하라고 했는데 그당시 옷깃의 파임은 많아서(깊어서) 초기보다 1.6배~2배나 났었다.



(圖 40) 朝鮮의 곤룡포 後(속 오례의보서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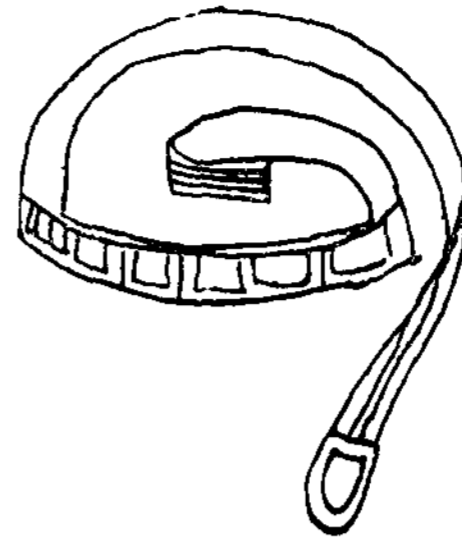


(圖 41) 明 宣宗(故宮圖) (圖 42) 玩古圖(고궁명  
像選萃) 화선채속편)



(圖 43) 무없는 단령 (圖 43) 무있는 단령  
(약학피범) (약학피범)

그려져 있는 일부인데 사령관이 두 장군과 앉아 있다. 사령관은 緋色 常服에 補를 달고 紗帽에 帶를 하고 있는데 이 옷깃의 파임은 世宗(도 34, 1522~1566) 초상화와 張居正像(도 36, 1573~1619)과 같다. 같은 시대인 14대 神宗 23년(1595)에 日本 上杉景勝에게 下賜한 蟒衣(도 37)의 옷깃도 도(34)와 같았을 것으로 본다.



(圖 44) 帶(삼재도회) 의 옷길이는(옷깃에서 옷자락까지) 땅에서 1寸 떨어지는 길이에 袖長(화장)은 손을 지나 팔꿈치까지 다시가는 길이이며 袖樞度(배래? 진동?)은 1尺이고 袖口는 9寸이다.

武官의 옷길이는 땅에서 5寸 떨어지는 길이로 文官보다 4寸이 짧고 화장도 손을 지나 7寸 길이이며 袖樞廣은 1尺이고 袖口는 주먹이 겨우 나갈 넓이로 좁은데 이것은 활동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인것 같다.

서민의 옷길이는 땅에서 5寸 떨어지며 화장은 손을 지나 6寸길이고 袖樞廣은 1尺이고 袖口는 5寸이다.

軍人은 옷길이는 땅에서 7寸 떨어지며 화장은 손을 지나 5寸이고 袖樞廣은 7寸~1尺이며 袖口는 주먹이 겨우 나갈 넓이다. 시종이나 役人들은 그림을 통해 보면 종아리 보다 짧은 옷을 앞자락 혹은 뒷자락을 허리에 치켜 올려 입었다.

소매넓이는 (도(16)明會典은 옷길이 : 소매 넓이가 5.5 : 1이고 도(22)三才圖會는 옷길이 : 소매 넓이가 3.7 : 1이며 도(37)上杉景勝의 蟒衣의 옷길이 : 소매 넓이는 4 : 1인데 도(38) Three Kingdoms이라는 소설을 연극화 한것)과 도(39)는 1.4 : 1로 매우 넓다. 朝鮮의 國朝續五禮儀補序例(1744)의 袞龍袍(도 40) 소매넓이와 비슷한 것으로 보아 末期에 와서 넓이가 넓어진 것으로 보인다.

c. 무와 옆트임

明會典(도 16)의 무모습은 왼쪽무가 옆으로 뻗도록 나갔고 그 방향이 허리 아래로 향했다 도(33, 41)과 杜堇(1465~1488)作 玩古圖(도 42)의 무모습은 도(16)과 닮았다. 도(35) 世宗(1522~66재위)의 초상화는 옆으로 나간 왼쪽무의 뻗은 방향이 허리 아래에 있는데 무의 넓이로

보아 따로 재단해서 붙인것 같다.

참고로 朝鮮 제 9대 成宗(1470~1494 재위)때 완성된 樂學軌範(도 43)을 보면 明會典의 상복 및 세종의 초상화(도 35)와 닮은 것이 동시에 수록되어 있다. 도(37)은 왼쪽무의 뾰족한 방향이 진동선보다 훨씬 위로 향해져 있으며 무를 따로 재단하여 붙인 것이 확실히 나타난다. 도(22) 三才圖會의 무 모습은 마치 朝鮮朝의 왕의 곤룡포(도 40)의 무모습과 같이 무가 뒤로 접혀진 것 같다.

옆트임은 초기에는 왼쪽무의 옆으로 뾰족한 점에서부터 트여져 있어 옷길이에 옆트임의 비율은 2:1로 唐代(2.3:1~3.4:1)보다 약간 더 트였다. 上杉景勝의 것은(도 37) 뾰족한 방향이 진동선보다 훨씬 위로 향해져 있어 트임의 길이도 더불어 길어져서 옷길이에 트임의 비율은 1.5:1로 아주 많이 트였다.

#### d. 여밈

太祖(도 31)와 도(37)에 가는끈이 달려 있다. 안자락은 볼 수 없었지만 매듭단추나 끈으로 고정시켰을 것이다.

#### e. 帶

「大明會典」에 의하면 洪武 3년에 東帶는 公服과 같게 정했다. 즉 一品 玉帶 二品 花犀帶 三品 金銀花帶 四品 素金帶 五品 銀鈹花帶 六品 七品 素銀帶 八品 九品 烏角帶이다. 洪武 24년에 公·侯·駙馬·佰은 一品과 같고 雜職(1품~9품의 정식관위에 있지 못한자)은 八品 九品과 같게 정했다.

#### f. 包와 花樣(補)

「大明會典」에 의하면 홍무 3년에 士庶의 服色은 雜色 盤領衣로 정했고 黃色은 사용치 못하게 했고 홍무 26년에는 命品官 상복은 雜色을 사용하고 紵絲綾羅綵繡를 사용하라고 했으며 서민은 紬絹紗布의 사용을 금했다. 또한 命官吏 및 軍民僧道人 등의 의복과 帳幔에 玄黃紫 3色 사용을 금했다. 朝見人員은 四時 顏色 의복을 입게 했고 純素는 허용하지 않았다.

花樣(補)은 홍무 26년에 정했는데 公, 侯, 駙馬佰은 麒麟 白澤 一, 二品은 仙鶴 錦雞 三, 四品

은 孔雀 雲鴈 五品 白鷗 六, 七品 鷺鷥 八, 九品 黃鸞 鸕鶿 練鵲 風憲官 獬廌

武官 一, 二品 獅子 三, 四品 虎豹 五品 熊羆 6, 7품 彪 8, 9품 犀牛 海馬

景泰 4년에 命 錦衣衛 指揮侍衛者 麒麟복색을 착용토록 했다.

天順二年에 命 官民人은 蟒龍 飛魚 斗牛 大鵬 獅子 四寶 相花大西番蓮大雲花樣과 玄黃紫色 및 玄色樣黑綠柳黃 姜黃 明黃色을 금했고 成化二年에 命 官民人 등의 服色에 花樣 사용을 금했으며 嘉靖六年에는 命 官民人 등의 五彩妝花織造를 금했다.

가정 一六年 品官花樣을 정했은 즉 公·侯·駙馬·佰 麒麟 白澤 文官 1품 仙鶴 2품 錦雞 3품 孔雀 4품 雲鴈 5품 白鷗 6품 鷺鷥 7품 鸕鶿 8품 黃鸞 9품 鸕鶿 雜職官 練鵲 風憲官 獬廌 武官 1, 2품 獅子 3, 4품 虎豹 5품 熊羆 6, 7품 彪 8품 犀牛 9품 海馬

이상과 같이 정해진 대로 하되 혼동해서 쓰지 않도록 하라고 했으며 錦衣衛 指揮侍衛者는 麒麟服色을 하게 했다.

### Ⅲ. 結 言

團領의 형태는 둥근 옷깃에 右衽이고 窄袖이며 옆트임이 있는 옷으로 원래 胡服이었는데 남·북조시대에 漢族에게 채용되어 唐代엔 常服(평복)으로 천자에서 천인까지 널리 입었으며 중국 옷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형태의 변화도 있었다.

宋代에는 百官의 常服은 曲領 大袖(三尺)인 公服이었는데 관리의 시무복의 의미가 많게 되며 唐代에 많이 입혀지지 않았던 袴褶이 상복으로 다시 등장된다.

明代에는 百官의 冠服제도를 唐과 같이 만들어 宋代의 公服은 그대로 公服으로 남겨두고 團領이 常服으로 다시 등장되었고 가슴과 등에 補를 달았으며 笏을 들지 않았다.

단령의 형태 변화를 살펴보면 옷깃은 당대 중기이후에 파임이 깊어지나 옷깃넓이(2~3cm)가 좁은 직사각형의 긴 형질으로 목에 둘러대어 옷깃을 만들었다. 확실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송

대엔 이미 옷깃넓이가 넓어지고 정바이야스로 재단하여 옷깃을 만들었고 명대까지 이어진다.

명대엔 盤領 團領의 표현이 있는데 둘다 둥근 옷깃을 의미한다.

옷길이는 당대엔 발목과 종아리의 중간 정도 길이와 종아리정도 길이 2가지가 있었는데 천인 계급 소작인은 짧았다. 韓滉(723~89)의 文苑圖의 文人은 발목 혹은 신이 가려지는 길이의 단령을 입고 있는데 五代 宋 元시대에도 역시 같다.

明代엔 몸에 맞추어 그 제도를 정했은 즉 文官은 땅에서 1寸 떨어지는 옷길이에 袖長(화장)은 손을 지나 다시 팔꿈치까지 가고 袖樁廣(진동? 배래?)은 1尺이고 수구는 9寸이다.

武官의 옷길이는 땅에서 5寸 떨어지는 길이에 화장은 손을지나 7寸길이이며 袖樁廣은 1尺 袖口는 주먹이 겨우 나갈 넓이로 좁다. 서민의 옷길이는 무관과 같고 화장은 1寸 짧고 袖樁廣은 같고 수구는 5寸이다.

소매 배래는 당대의 直배래가 明초기에 조금 둥글어졌고 세종때 넓이가 넓어졌으며 말기엔 더 많이 넓어졌다.

무는 당대에 허리 부분만 파주어 저절로 생긴 것이었으나 송 명대엔 점점 넓어져서 뽀족하게 되고(뽀족한 방향이 아래)무를 따로 재단하여 붙였고 宣宗때는 뽀족한 방향이 위로 향하고 더욱 넓어졌다. 여밈은 매듭단추에서 가는 끈으로 매게된다.

色은 唐貞觀 4년에 3품이상은 紫 5품이상은 緋 7품이상은 綠 9품이상은 靑色이었다가 674년에 緋 綠 靑에 深 淺의 구별을 두었다. 黃色은 초기엔 귀, 천 없이 사용하다가 668년에 天子만 사용할 수 있었다. 송대엔 紫 緋 綠 靑을 公服色으로 정했으며 명대엔 홍무 26년에 잡색을 사용토록 했다(玄, 黃, 紫色 사용금지).

團領의 형태 변화를 도표로 그리면 다음과 같다.

단령의 변천

시대	남북조	당	송	명 초기	명 중기	명 중기이후
옷깃						
섶	섶이 가슴중앙에서 먹혀짐	섶이 가슴을 덮지않음	당과 비슷	섶이 가슴을 완전히 덮는다.		
무의 재단						
여밈	넓은 끈	매듭단추	매듭단추	매듭단추·가는 끈	가는 끈	가는 끈



表 2. 唐의 團領着用表

번호	작 품 명	작가 및 연대	사진의 출처	신분	색	옷길이	두식	대	신	비 고
1	唐太宗納練圖	염입본	故宮圖像選萃	황제	緋	발목	사모	대	靴	옷단에 횡선 가슴에 문양
2	高祖 초상화		"	"	"	"	"	"	"	용문(가슴 배 어깨)
3	太宗 "		"	"	黃	"	"	"	"	"
4	玄宗		大唐の繁榮	"	흑 백	"	건	"	"	젓힌것
5	西安出土 文武官 三彩土偶	723	"	관리	"	中	"	"	"	(中: 발목과 종아리의 중간위치)
6	唐三彩騎馬群像		"	기마 여인	緣		無	옷과 같은 색 끈	"	젓힌것
7	搗練圖	張 萱	"	官女	분 홍	발목	"	白色 끈	"	"
8	낙타위에 樂人 (陶彩油)	鮮于庭誨묘출토	"	樂人	緋1 緣2	좌상				
9	樹下美人圖		"	시녀	청	종아리	無	옷과 동색 끈	履	
10	牛耕과 麥踏	敦煌石窟벽화	"	농민	흑 백	"	笠 4 사모 1		"	소매가 짧다
11	牧馬圖	韓幹(723~760 전후)	故宮人物畫選萃	기마인	연미색	좌상	사모	대	靴	
12	明皇幸蜀圖	현종대	故宮名畫選萃	"	緋, 高동청, 분홍	中	"		"	
13	蕭翼賺蘭亭圖	閻立本			미 색		자이 있는것	검은 끈	리	
14	文苑圖	韓滉(723~89)	China(History in Art)	관리	자색, 高동, 미색	발목	사모	대		
16	揮扇仕女圖	傳 周昉	"	시녀	비, 자	망끝	안씀	"		가슴, 배, 등 엉덩이에 둥근 꽃무늬
17	菩薩像	돈황천불동 328窟	원색세계의미술	4人男	흑 백	中	사모	"	화	
	"	"	"	막대 든 남자	"	종아리	"	"	화	소매가 짧다
18	樂人圖	蘇思勗묘벽화	"	악인11	미 색		"	대		
19	男子像	"	중국미술 II (강담사)		분 홍	中				
20	化城齋品圖	敦煌천불동 217窟	"	관리	비 3 高동 1	발목	"	대	화	홀을 들고있다
21	懿德太子墓벽화	706	"	사신11	자, 비3 미5 高동	상반신	"			
22	馬球圖	長懷太子묘706	"	기마인	高동 1 미 2	종아리	"	대	화	
23	狹獵出行圖	"	"	"	비 3 미23 高동	"	"	"	"	
24	觀鳥捕蟬圖	"	"	여종	미 색	"	"	"	리	
25	樹下供養者	돈황천불동 17窟	"	女人	황 색	발목		분홍 끈		
26	宮女群像	永泰公主墓 (706)	"	궁녀	미 색	中				
27	石槨線刻畫	"	唐代의服飾	관리	흑 백	발목	"	대		
28	"	"	"	관리	"	中	"	대	화	
29	韋洞墓石槨線刻畫	"	당대의복식	시비	흑 백	中	"	대	리	
30	"	"	"	시남	"	"	사모	"	"	
31	"	"	"	백관	"	"	"	"	"	홀, 橫線

32	女俑	吳守虫墓출토 (748)	"	女人	"	발끝		대		
33	薛字墓벽화		"	시녀	"			"		
34	피리부는 남자	李爽墓(668)	"	악인	"	中	건		리	
35	趙澄之墓벽화	696	"	관리	"	"	사모	대	하	홀
36	"	"	"	남녀종	"	"	"	"	"	橫線
37	唐墓벽화	710	"	관리	"	종아리	"	"	"	
38	十王經圖卷일부	돈황천불동발견	세계문화사 III (학원사)	"	"	발목	"	"		

表 3. 宋·明의 단령 착용표

번호	작 품 명	작가 및 연대	사진의 출처	신분	색	옷길이	두식	대	신	비 고
1	八達春遊	趙鼎(5代梁)	고궁인물화선체	귀족	자2 비2 록4	발목	사모	대	화	
2	宮樂圖	5代(906~960)	"	여악사	황	"	"	"	"	
3	韓熙載夜宴圖	顧闳中(한희재 (911~970))	중국미술 II	여종 빈객	연 청 비 흑	" 中	사모	"	"	橫線이있다
				무화 남악사	청 록 흑, 분홍 회록	발목 中	사모	"	화	中(발목과 종아리의 중간 길이)
4	聽琴圖	宋徽宗(1082~1135)	원색세계의 미술	문인	청, 홍	"	"	"	백색신	
5	文會圖	"	고궁명화선체	"	분홍, 흑 회록	"	"	"	화	
				남종 여종	흑 청, 회록 백, 연고 동,	종아리 " 발목	"	대		
6	羅 漢	宋·劉松年 (1190~1230)	고궁명화선체 (속편)	남종	연고동	종아리	건	흑색끈	리	
7	宋 仁宗后坐像	宋인종(1023~1063)	고궁도상선체	궁녀	흑 색	발목	花冠	대		옷에 꽃 무늬가 많다
8	役人과 기마인	宋	中國文化の成熟	역인 기마인	흑 백	종아리	사모			
9	清明上河圖	宋·張擇端	中國美術 II	시종 짐꾼	흑 백	걸어 올림	"	끈		
10	耕作圖	宋·돈황석굴 61호 (이승선 묘사)	세계문화사 III	소작인	"	종아리	사모갓			
11	調良圖	元·趙孟頫 (1254~1322)	고궁명화선체	기마인	"	발목	사모	대	화	
12	相馬圖	元·趙麟 (1342~1365)	" (속편)	"	緋	"	"	"	"	
13	종마와 3人	元. Jen Jenfa	China(History in Art)	"	비, 흑 회색	"	"	"	"	
14	Street Scenes in peace time	元. Chu Yü	"	"	록, 황	"	건 몽 고풍동 근모자		리	
15	Yang Jung's Apricot garden	明. Hsieh Ting hsun (1437)	"	문관	비, 청 회색	"	사모	대		
16	명의 出征圖	조선임진왜란 때(1598)	"	사령관	비	반신상	"	"		두루마리그림
17	Three Kingdoms	明	"	관리	자, 비, 청	발목	"	"	화	소매 넓이 넓다
18	太祖成祖宣宗	明	고궁도상선체	황제	황	"	익선관	"	"	끈통포

19	世宗	明	"	"	"	"	"	"	"	"	(용문 많다) 곤룡포
20	玩古圖	明杜堇(1465~1488)	고궁명화선채	여종	청회색	"	"	"	"	"	
21	于謙像	景帝(1449~57)때의 공신	세계문화사Ⅲ(학원사)	문관	흑 백	반신상	사모	"	"	"	
22	張居正像	만력제(1573~1619)때 공신	"	"	"	"	"	"	"	"	
23	宋濂像	明太祖때 최고의 文人	"	文人	"	"	"	"	"	"	
24	古典공부	明	"	서생	"	"	"	"	"	"	
25	賢人隱遊圖	明	원색세계의 미술	童子	청	발목				미색곤	
26	七夕祭	明. 杜陵映	대당의 번영	여종	흑 백	"				대	
27	衣	明宣宗의 하사품(1595)	중국문화의 성숙	문관복	비						
28	十八學士登瀛州圖	明. 仇英(1509~1552)	국립 고궁박물관 소장	학사	분홍, 청록, 고동미색, 백	발목	사모	대	화		
29	天子常服圖	明	大明會典								
30	盤領衣	明	三才圖會								

<참 고 문 헌>

世界文化史 Ⅲ.Ⅳ. 학원사 서울 1964

國立故宮博物院編 故宮圖像選萃 1971(중화민국 60 )

" 故宮人物畫選萃 1971( " )

" 故宮名畫選萃 1971( " )

" 故宮名畫選萃속편 1976

關根眞隆 奈良朝服飾の研究(圖錄編)吉川弘文館, 奈良

源田淑人 唐代の服飾 東洋文庫, 東京 소화 45년

大唐の繁榮 世界文化史, 東京 소화 44년

中國文化の成熟 世界文化史, 東京 소화 44년

中國の美術Ⅱ 講談社, 東京, 1978

世界原色の美術 15(中國) 小學館, 東京, 소화 48년.

Bradley Smith & Wun go Weng China (A History in Art) Jhon Weatheshill Inc., Tokyo, Japan.